예수 믿어 오른 구름 위 찬란함

(데살로니가전서 5:16~18)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어 오른 구름 위 찬란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 믿어 오른 구름 위 찬란함'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맡은 교구 안에 흑석동 산동네에서 사시던 할아버지께서 병상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신다는 소식을 며느리와 구역장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에 집을 나가서 도박과 외도로 일생을 보내시다가, 말년이 된 후에야 집에 돌아오셨는데 폐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집사님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을 받게 해드리겠다는 결심으로 시아버지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세례를 받겠다는 시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병상 세례를 부탁해 오신 것입니다.
간단한 요리문답(要理問答) 절차를 밟으려고 입을 떼는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격식을 전혀 모르시니까 제 말을 빼앗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대체적인 내용인즉 당신이 평생 잘못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회개였고, 며느리 말대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데 그것이 정말인지, 정말로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다보니 세례 전에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을 확인하는 문답의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상 세례를 베풀고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저 혼자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누워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고통으로 만상을 찌푸리시고 갑자기 손을 공중에 휘저으시면서 "목사님! 목사님!"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서 왜 그러시냐고 여쭙자 "이상해! 이상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구름이 몰려와서 목사님 밑을 지나서 당신의 밑으로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또 구름이 오고 자꾸만 구름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일이 있고 며칠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마치 사진을 보듯이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구름을 보시고 나서 찌푸렸던 얼굴이 마치 아이의 혈색으로 바뀌면서 편해지셨습니다. 그 광경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의 느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름 위에 계신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구름은 인간이 사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인간의 시점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구름이 가렸던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에 마음은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몸은 여전히 흑석동 산동네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하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사십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하늘이셨습니다. 즉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도 하늘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때에 드는 느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구름 위에 떠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삶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십자가에서 땅에 대해 죽고 구름 위의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 층을 뚫고 올라가면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하늘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찬란함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찬란함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서 찬란한 햇빛을 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찬란함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쉬지 않는 기도가 나오게 되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굳이 명령형으로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감이 늘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이유는 구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대상들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은 어느덧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충해보자면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기뻐질 것이다 /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쉬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 항상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굳이 명령형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앞서 보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면 찬란함은 저절로 주어지게 됩니다. 끊이는 않는 기쁨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대화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최측근에게 허락되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 이상 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어느 의사를 찾아갈까요?"라고 합니다. 또는 사업의 문제가 생기면 대개는 "어떻게 해야 사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라고 응답을 구합니다. 자녀가 수험생인 부모는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야할까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진로든

이것을 마음이 붙잡기 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마음을 문제에 두지 말고 예수님 안에 두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기는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땅에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임을 통해 구름 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름위로 올라가면 항상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가 찬란할 정도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는 음성이 들려온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결과 마음에 채움이 생기고 만족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생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의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자들의 생각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항상 기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과 도널드 캠벨은 그들의 논문에서 이를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라고 체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평균 3개월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감의 지속기간은 로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

다. 직장 내에서 승진을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 결국 승진을 하게 되어도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연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연봉이 오르는 기쁨을 다시 느끼려면 이미 오른 연봉에서 40%가 또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세상에 매년 연봉을 40%씩 올려줄 수 있는 회사는 없기에 행복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소원하고 꿈꾸고 비전을 갖고 성취할 때에 행복감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이루어도 이 행복감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쾌락의 쳇바퀴라는 현상을 찾아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승진은 하나님 크기에 비할 수 없이 무한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원하면 마음은 승진에 맞추어서 축소됩니다. 결국 승진을 하게 되면 축소되었던 마음이 승진으로 꽉 차고 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마음을 수축하게 할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완되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본래의 하나님 크기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채워지는 마음이 승진으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 만족이 없고 다시 엄청난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다시 소원을 갖게 되면 마음은 다시 수축하고 또 다시 이완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구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져도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불렀지만, 성경에 근거하자면 마음의 모습은 '아코디언 현상'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소원으로 인해 수축되었다가 이루고 나면 다시 본래의 하나님 크기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소원이 생기면 수축되었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 주어져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은 곧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승천하신 주님 따라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은 마치 알 마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달라붙은 것도 없고 소원하는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육체가 관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실제 죽음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마음이 된 상태로 예수님과 연합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채우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 마음이 되지 않는다

면 결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이 어찌나 황홀했는지, 산 아래에서 꿈꾸고 얻고 싶어 하던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야 할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셨던 것처럼 내 마음도 채우실 때에 세상에서 더는 바라는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궁극적인 기쁨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대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마음을 구름 위로 올려 보내서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사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으니 사원들을 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그 사업장과 회사의 직원들은 복 터진 것입니다.
이런 찬란한 기쁨을 얻기 위해 일단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기쁨을 심리학과 연관해서 생각해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도 세상 사람들과 연관해서 생각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속의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에 대해 쉬지 않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대상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누구나 뭘 먹을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즉 점심시간은 점심메뉴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시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 부장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많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김 부장에게는 점심메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건강이 마음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동료직원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김 부장은 '나 지금 점심 생각 없어'라고 대꾸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이 점심이 아닌 마음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아내의 건강에 옮겨가

있을 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이와 상통하는 바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큰 존재감의 대상으로 느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배우자나 자녀를 담는다고 해서 그들이 내 마음에서 말하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돈 문제가 터져서 마음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밤잠을 못자고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을 구름 위로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가장 큰 존재감으로 가지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뒤로하시고 나와 일대일로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 인격이 하나 되어서 대화하는 내밀한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찬란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이 느끼는 존재감의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마음으로 체감할 때에 실제로 그만한 크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곧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일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세상의 별의별 것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마음에서 일등의 존재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문제는 마음을 온통 빠지게 할 정도로 거대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거대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물고문을 아실 것입니다. 정보를 캐내기 위해 머리를 물에 집어넣는 광경도 어렵잖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물고문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바닥에 눕혀서 이마 위로 물통을 하나 달아놓고 바늘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이 한 방울씩 이마로 떨어집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오직 이마에 떨어지는 물방울뿐입니다. 그렇게 물방울에 온 감각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돌에 맞는 것처럼 아파옵니다. 이윽고 바위에 맞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내 머리와 육체를 산산이 부서뜨릴 것 같은 공포감이 생겨납니

다. 고작 물이 떨어지는 것뿐인데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물방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물방울에 안도했다가 이제는 맹수를 앞에 둔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비한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이 물방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흘러들어가는 만큼 무한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속세를 떠나 산에서 수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동양난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마음을 주던 어느 날 깜짝 놀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수련을 하겠다고 산속에 들어와 있는데 실은 그 마음 전체를 동양 난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는 동안 어느덧 마음 전체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잖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계속 반복하는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맘에 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뜨면 거울로 쌍꺼풀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는 동안 쌍꺼풀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큰 문제로 여기는 많은 문제들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잠도 못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어떨 때에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도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는 땅에 마음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마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로도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름 아래에 있는 땅은 곧 그리스도 예수 밖입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마음은 세상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도 보고 내일도 봅니다. 이미 몇 십년간 보아왔고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동안에 마음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도 끝도 없이 큰 것으로 체감합니다.
이 지구촌은 마치 아이맥스 극장 같습니다. 아이맥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개미 한 마리조차도 사람을 물어죽일 정도로 크고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미는 발로 밟으면 죽는 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는 실제 크기와는 상관없이 엄청나게 크게 보일 뿐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구촌은 이렇게 문제를 앞둔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크게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구름 위에서 보면 나를 죽이려하는 그 문제들이 실제로는 한 방울 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에 로키산맥을 보면 정말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 고작 성냥 개피의 유황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토록 시점에 따라서 문제의 크기는 변화하는데 어디서 보는 것이 진실일까요?
바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보는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땅에 머물기 때문에 성냥 개피의 유황부분만도 못한 문제를 로키산맥 같은 웅장한 것으로 봅니다.
지구촌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 시점의 문제입니다. 저마다 아우성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를 실제 크기대로 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이맥스 극장의 화면을 꽉 채운 개미의 영상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게 큰 문제다, 저게 큰 문제다, 원수로 인해 분해 죽겠다, 억울하다면서 난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물방울 고문을 받는 사람을 지켜보는 심정이 되어보세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분으로 보이는 현장으로 가면 비로소 세상의 문제들도 본래의 크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구름 위로 보내지 못하면 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개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을 개미처럼 여길 때에 기도는 중지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보면 세상일들이 크게 보이는데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구름 아래 땅에 갇혀서 사는 동안 문제가 물방울 고문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마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점심밥을 거르는 김 부장처럼,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 앞에서 자녀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돈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동부와 청년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아는 전도사님이 인형극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으신 분이신데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형극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아이들이 웃었다 울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아이들에게도 이분의 인형극을 보여주고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인형극을 옆에서 봅니다. 2/3정도는 정면에서 인형극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좌우에서 공연을 하는 전도사님만 쳐다봅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보고 재미있어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대로 두었는데 반응이 참 이상했습니다.

인형극을 정면에서 보는 아이들은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웃었다 울었다하며 재미있게 관람을 합니다. 그런데 인형극을 옆에서 보는 아이들은 슬프거나 무서운 장면에서도 웃기만 합니다. 대체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 아이들은 인형극이 아닌 전도사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웃긴 이야기를 연출하시는 모습은 당연히 우습고, 또 슬프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연출하시는데 그 모습이 또 우스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할까요?

마음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 정면에서 인형극을 보던 아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똑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낙담하면 나도 낙담합니다. 무서워하면 똑같이 무서워하고, 분노하면 똑같이 분노하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인형극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믿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의 마음은 구름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구름 아래로 손을 내미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무서운 장면이 닥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분하고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위에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자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붙잡혀 있던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어야 마땅한 일인데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 보입니다. 억울해서 죽어 마땅한 일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을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하며 이를 위해 세 번을 간구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행했던 시점은 아마 아라비아로 갔을 때에 믿음의 초기 단계였으리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주십니다.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질병은 간질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말고 간질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는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

런데 마음을 하늘로 보내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나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십니까? 혹은 분하거나 억울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인형극을 정면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기억하는 설교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앞으로 잘 될 테니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구름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을 안 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름 아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아래로 손을 내미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잘 되어가는 일입니다. 결코 안 되는 일이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사람들 눈에 망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이 들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조차 '봉사 안 하고 충성하지 않은 결과가 저렇다'라며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살의 돈 많은 젊은 아빠가 아름다운 아내와 예쁜 두 딸과 막내아들을 남겨두고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제가 부럽죠? 뇌종양은 제 마음의 종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특효약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름 위로 올라간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사자 밥이 되어서 죽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구름 아래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보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연합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차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이제까지 구름 아래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주여 삼창을 외쳤고, 그래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사십일 금식작정기도를 하고 한 끼 금식을 백일동안 해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될 일인데 구름 아래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해왔습니다.

구름 위의 찬란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려는 광명의 세계이고 찬란함의 세계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실패했어도 병이 났어도 문제가 많아도 구름 아래의 일이라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위에서 보이는 그 일들의 크기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체감했던 것처럼 거대하지 않습니다. 한낱 개미 같고 성냥 개피의 유황부분 같은 일들을 아이맥스 극장의 화면처럼 확대해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벌벌 떨고 공포심에 밀려서 반응하기 전에 문제의 본래 크기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기에 앞서서 마음을 구름 위로 올려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시점에서 암이라는 문제의 본래 크기를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암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떠올리며 해석해봅니다.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저절로 찬란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 쉬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름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장 크게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최측근이 될 것이다. / 범사에 십자가에서 죽고 구름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네 마음과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찬란한 기쁨과 최측근 된 자의 기도의 특권과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찬란함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는 축복의 내용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찬란한 복들이 오직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이루어짐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마음이 구름 위에 머물기 위하여 십자가 생활화에 전 생애를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